

글 _ 강경희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릴레이의 미학

연

마 전 협회는 '벤처비전 2010'을 선포하고 '벤처 1000억 클럽'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2010년에는 벤처산업을 통해 수출 300억불과 2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멋진 선언이었다. 향후 '벤처1000억 클럽'은 '1조 클럽(명예의 전당)'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200만명 고용을 전제로 한 '벤처1000억 클럽' 계획 발표는 답답한 숨통을 틔워 준다.

최근 협회가 남양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컴퓨터 관련 장비를 기증한 일도 있었다. 그에 앞서 강원도에서 개최한 임원워크숍에서는 강원도 일대에 발생했던 산불 피해복구 지원금을 전달했다. 당장의 사업에 전념하기에도 벽찬 경제 상황에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목표를 세우고, 어려움에 처한 사회의 어둡고 아픈 곳을 치유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은 벤처기업의 건강한 정신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릴레이로 이어지는 나눔의 대장정

한국여성재단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족 기금' 마련을 위한 '100인 기부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5월 1일 100인의 기부자들이 일제히 기부를 하고 각자 2일에 기부할 기부자를 초청해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5월의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모두 3100명이 기부에 참여하는 나눔의 대장정이다. 학창시절, 운동회의 백미는 단연 '릴레이 경주'였다. 청군과 백군으로 나뉜 각 학년 대표들과 선생님들이 바통을 이어받으며 죽을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하면, 전교생이 하나가 되어 목이 터져라 응원을 했

던 기억이 있다. 이 경주를 깊이 들여다보면 삶의 이치가 담겨져 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리다가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길 때는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기에 바통을 넘기는 주자도 넘겨받는 주자도 속도를 비슷하게 맞추면서 가장 적절한 순간에 넘겨야 한다.

방금까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오던 주자는 그대로 누워버릴 것처럼 지쳐있지만, 바통을 넘기는 순간부터 그 바통을 이어받아 달리는 주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본다. 결국 마지막 주자가 남은 한 바퀴를 돌 때에는 모든 주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마음을 졸이며 승리를 위한 멋진 피날레 응원을 펼친다. 결과가 승이든 패이든, 이렇게 하나로 뭉쳐진 순간에 느끼게 되는 환희의 일지감은 땀과 흠으로 범벅된 지친 몸이 편하게 이완되는 동안 지속된다. 릴레이를 한다는 것은 목표에 대한 동의와 함께 경주를 이어가는 주자들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서는 일체감이 전제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기에 멋진 경기이다.

기적의 일체감 맛보는 '벤처1000억 클럽'이 되길

한국여성재단에서 진행하는 올해의 '100인 기부릴레이'에 참여하는 기부주자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공통된 염원을 토대로 하여, 5월 한 달 동안 기적의 일체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벤처1000억 클럽'에 참여하게 될 벤처기업들은 함께 참여하는 기업들과의 일체감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 자신의 손에 쥐어진 바통을 뒤따라오는 기업에게 넘겨주어, 함께 참여하는 기업들이 릴레이를 이룬다면 그 일체감의 크기는 점점 커지리라. 그렇다면 '벤처1000억 클럽'을 넘어 '벤처1조 클럽'이 만들어지고, '벤처1000조 클럽'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 명예의 전당이라 부를 만한 벤처 클럽 행렬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